

광야에서

찢기 는 가슴 안 고 사라— 졌던
 이 땅에 피울 음 있 다
 부동 칸 두— 팔에 솟아— 나 는
 하얀 옷의 훃줄 기 있 다— 해 뜨
 는 동해에 서— 해지
 는 서해 까지— 뜨거
 운 남도에 서— 광활
 한 만— 주별 판— 우리
 어찌 가난하리 오— 우리
 어찌 주저하리 오— 다시
 서는 저— 들판에 서— 움켜
 준 뜨거운 흙이 여—